

겨울철 보조난방기 고르기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기기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예년과는 달리 시장 활성화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
보조난방기 시장은 이미 업체가 과포화되고 유통구조가 무너져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

보조난방기 시장전망

기온이 푹 떨어지면서 난방기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기상청에선 올 겨울이 어느 해보다 추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아프리카니스탄의 전쟁 등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가정용 소형 난방제품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백화점 가을 세일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해 히터나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원적외선 선풍기형 히터와 함께 할로겐 히터나 세탁이 가능한 전기요 등 소비자의 주목을 끌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올겨울 난방용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제품은 유지비가 적은 가스캐비닛히터와

선풍기형 전기스토브, 가열도 되는 복합식 가슴기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겨울 큰 인기를 얻은 선풍기형 전기스토브는 360도 회전으로 고른 난방효과를 보여주는 신제품과 타워형 벽걸이형 콘로형 등이 출시돼 뜨거운 판매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기기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예년과는 달리 시장 활성화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캐비닛히터 시장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가격인상 등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난방기 시장은 이미 업체가 과포화되고 유통구조가 무너져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보조난방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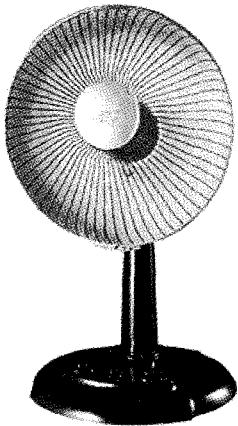
[가스·석유·전기히터]

선풍기 형태의 원적외선 히터는 발열부인 열선을 세라믹에 감아 원적외선이 열과 함께 나오는 제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가정용으로 적합한 전기스토브는 넘어지거나 기울어져도 하단에 내장된 센서가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고 원적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통, 신경통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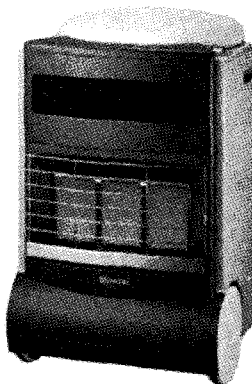
할로겐 히터도 선을 보였다. 전원을 켜고 1분 가량 지나야 열을 발산하는 원적외선 히터의 단점을 보완해 가동 즉시 열을 방출한다.

저실 등 넓은 공간의 난방에는 가스 히터가 많이 쓰인다.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스캐비닛히터는 등유를 사용하는 로터리히



겨울철 보조난방기 고르기



터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들고 이동도 간편하다. 최근에는 산소결핍방지장치와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다.

전기를 이용하는 라디에이터는 국산과 수입품이 다양하게 선보이며, 그외 팬히터가 돌며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벽걸이형 온풍기와 스탠드형 온풍기도 있다.

[전기요·전기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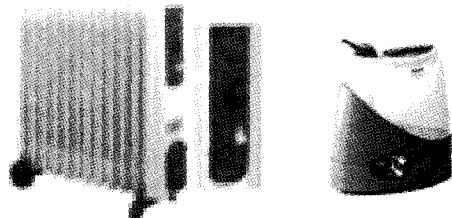
전기요, 전기장판도 신개념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세탁이 어려운 전기요의 단점을 보완해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전기요가 인기다. 일반 전기요보다 1만원 가량 비싸다.

머리 부위에만 열선을 제거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장판이 나오는 등 향균 재질을 이용한 향균 음이온요, 황토 전기요 등 기능성 제품들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선택시 전자파차단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가습기]

가습기는 물을 가열해 뜨거운 수증기를 발산하는 가열식과 전기의 초음파를 이용해 물을 순간적으로 증발시켜 차가운 수증기를 만드는 초음파식이 있다. 최근엔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한 복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복합식은 수증기 분사량이 많은 초음파식과 세균 발생이 적은 가열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통 속
의 물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누드형이 나오는 등 디자인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미' 처럼 천연향이 뿜어져 감기예방 신경안정 공기청정효과를 내는 제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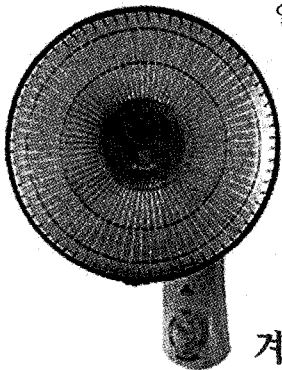
난방기 고르기

[가스·석유·전기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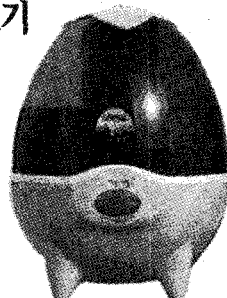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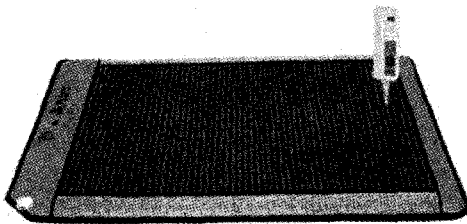
넘어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안정장치가 장착된 제품이 좋다. 작고 가벼우며 회전기능이 있는 선풍기형 히터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전기히터는 절전형인 원적외선·할로겐·석영관 히터 등이 인기다. 전기히터는 냄새가 없지만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난방공간이 좁은 공부방 등 개인용으로 적당하다.

원적외선 히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 편이지만 안전성이 뛰어나 유아가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에 좋다.

연료비가 비싸고 냄새도 나지만 열효율에 있어서는 전통적 석유난로가 좋을 수 있다.



겨울철 보조난방기 고르기



[전기요·전기장판]

전기요는 커버 분리형이나 세탁기 세탁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전기요, 전기장판은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파 시험을 거쳐 인증마크를 획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습기]

필요에 따라 더운 김과 차가운 김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복합식이 좋다. 이 복합식 가습기는 분사량이 많은 초음파식과 세균발생의 걱정이 없는 가열식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난방기 구입시 유의점

난방기 구입시는 실내평수와의 조화를 먼저 고려하라

거실이나 방의 평수에 따라 적당한 난방기를 구입해야 한다. 가스히터는 11~20평 공간을, 스토브는 9~11평 정도의 공간을 덥히는 데 적당하다. 제품에 퍼지센서가 내장돼 실내의 크기와 온도변화를 감지하는 제품이 유용하다.

제품별 할인율도 천차만별이다. 가격이 싸도 추위나 열기에약한 소재나 화재안전장치가 소홀한 제품은 피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색상도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신경 쓰면 더욱 좋다.